

# 애들이 우리 '생일' 이야, 법당 와 봐~

9월 21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원 지하 소강당. 경희대학교 불교학생회(회장 김준희·이하 경불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A Thundering Cry!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각 스님 초청 공개법회를 개최했다.

300석의 의자가 꽉 차고도 넘쳐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통로 중간 중간에 간이 의자를 갖다놓고 법문을 경청했다.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열의가 가득하다.

공개법의 시간. 한 학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현각 스님의 대답은 간단하다. "나 자신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올 미래를 돌려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세요."

법회가 끝나자 그 학생은 경불회 임원진을 찾아와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궁금해졌다"며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공부에 동참하고 싶다"고 입회신청서를 냈다. 이날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학생들은 10여 명. 공개법회를 개최한 목적이 달성된 셈이다.

경불회가 이번 법회를 열게 된 계기는 대학생 불자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경불회는 회원이 단 5명 뿐. 올해에는 단 한명의 회원도 가입하지 않았다. 재학생이 없어 부처님오신날 연등제도 준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경불회는 심각한 존립위기를 느꼈다.

이에 재학생과 동문으로 구성된 '비상법회'를 6월부터 소집하고 화제사 국제선원 앞으로 e-mail을 보냈다.

"대학생 불자들을 교화하고 싶으나 회원이 너무 적은 나머지 불교학생회 문물답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 불교학생회를 위해 창립기념 공개초청법회에 꼭 연사로 와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이였다. 현각 스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은 물론이었다.

행사를 주도적으로 마련한 윤형식 동문(39)은 "공개법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해 향후 불교학생회 행사에 초청하면서 계속적으로 포교활동을

"1학기는 축제, 2학기는 창립제로 포교에 나서요." 대학 불교학생회들의 창립제가 가을 청년 불심을 뜨겁게 한다. 전국 대학 불교학생회의 창립기념일이 대부분 9-11월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창립제 행사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회원들끼리 모여 초출한 창립기념일 법회를 보았다면, 이제는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전교생이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캠퍼스 학우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도 나오고 있다. '밖으로 눈 돌린'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창립제를 들여다 보자.



창립기념일 공개법회를 개최해 좋은 호응을 얻은 경희대 불교학생회가 9월 21일 공개법회 후 초청법사인 현각 스님과 기념촬영했다.

## 대학 불교학생회 '창립제' 줄이어... 포교 기회로

### 공연·초청 강연·체육대회 등 이벤트로 주목 받아

법일 것"이라며 "외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창립제를 통해 불교학생회를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외적인 행사를 통해 창립제를 '캠퍼스 포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충남대 대전대 한남대 등 충청도 지역 대학교 불교학생회들은 최근 줄어들고 있는 회원을 하나로 결집해 9월 30일 공동창립기념 행사 '충청인 체육대회'를 치렀다.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봉행하는 개별적인 창립제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생 불자들의 불심을 하나로 결집한 행사였다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명지대 불교학생회는 11월 18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학생회관 소강

당에서 공연을 펼쳤다. 수화, 기타연주, 합창 등의 공연을 갖고 행사 시작 전에는

## 대불청 새회장 '의욕' 맞대결

### 정재호·박효상씨 '출사표'... 10월 22일 투표

대한불교청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사옥)는 제14대 중앙회장 선거를 10월 22일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치른다

정 후보는 "대불청에도 모금방법을 차별화하는 경영전략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연대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겠다"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대불청을 제2의 도약으로 이끌

것을 만(만)자로 설치하고 대법회를 봉행한다. 또 행사에 참가한 동문선배들과 함께 즐기는 동문체육대회도 연다.

승실대 불교학생회는 10월 11~12일 이틀간 캠퍼스 광장에 간이부스를 설치하고 학우들을 대상으로 차보시에 나선다. 또 다구와 다기, 단주 등 불교용품들을 전시하고 학우들의 발길을 이끌어 불교학생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홍보를 할 예정이다.

11월 11일 창립제를 봉행하는 성신여대 불교학생회는 아예 학교 밖 타학교를 향한 포교효과까지 생각하고 있다.

성불회 박설아 회장은 "인근의 한양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학생들이 참석하기도 한다"며 "창립제가 다양한 불자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대외적 포교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는 '웃찾사' '개그콘서트' 등 젊은이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각색해 불교학생회를 홍보하는 '포프' 형식의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또 찬불가 합창대회 및 공개수계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원대 불교학생회는 11월 4일 캠퍼스 대강당에서 불교학생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의미와 의의를 밝히는 공개발표회를 개최한다. 빔 프로젝트를 슬라이드 필름 등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불교학생회를 홍보하고 학우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청공 남성중창단

부산 동의대학교 캠퍼스는 매주 일요일마다 찬불가 소리가 가득하다. 음악대학 연습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밤늦도록 연습을 하는 청공 남성중창단(단장 정성민)의 노랫소리다.

타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대에서 당연히 찬불가 소리가 흘러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성민 단장은 "음대에서 내놓고 부처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이곳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그동안 연습장소조차 섭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단장이 동의대에 출강

이 바쁘지만 그 외에도 사찰 산사음악회 등에 두루 초청공연을 나가며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사찰 개산대제가 줄지어 열리는 10월 한 달 내 별채부터 스케줄이 꽉 찼다.

이들은 '음악을 전공한다고 해서 자신의 종교성향을 밝히는 일이 왜 부끄러운가'라는 고민 끝에 단체를 결성하게 됐다. 그러나 불자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나서도 어려움은 계속됐다. 그나마 있는 불자 음악인들조차 생계를 잇기 힘들어 개종하는 사례를 보면서 정 단장은 '불자 전문음악



올해 6월 14일 금정문화 소극장에서 창단음악회를 연 '청공'은 그동안 전국불교청년대회, 산사음악회 등에서 음성공양을 펼쳐온 청년 전문음악인 단체다.

## 오페라에서 마징가Z까지 불러

### 2004년 창단, 전문음악인들의 포교 위한 하모니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동의대 한 구석에 연습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청공은 2004년 1월 창단한 젊은 남성불자 솔리스트만으로 이루어진 불교중창단이다. '부처님 품안에서 노래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 하는 뜻에서 '청공(淸空)'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젊은 불자들이 담게 패기가 넘친다. 공연에서는 찬불가와 오페라 뿐 아니라 '빈대떡 신사' '마징가Z'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선곡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리더인 정성민 단장을 비롯해 테너 박윤규, 바리톤 조창준, 바리톤 추현철, 테너 강은태 등 5명으로 이뤄진 멤버들은 모두 성악 전공 석사 이상 학력보유자들이고, 한미음선원, 원불교 경남교구, 흥법사, 장유사 등의 합창단 지휘를 맡는 등 탄탄한 실력을 자랑한다. 정 단장은 동의대와 부산여대를 출강하고, 멤버인 조창준씨 등은 시립합창단원으로 있어 눈코 뜰 새 없

인을 위한 단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또 불교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가 예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벗고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공 또한 공식적인 창단을 하고 2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 이르러서야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그동안 자비를 털어가며 공연준비를 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다행히 올해는 부산 금산사가 후원사찰로 나섰다.

현재 청공은 내년 초에 찬불가CD를 제작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소리울림이 좋은 사찰'을 찾아다니는 중이다. 공연이 잘되는 전통 사찰 안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찬불가를 녹음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청공 멤버들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잡아 줄 불자 지휘자와 작곡자도 찾고 있다. 이렇게 완료한 CD는 전국 불자단체와 사찰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051)890-1318 이은비 기자

## 하반기 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제 일정

한양대	9월 26일	불교영화상영회 및 창립법회
숙명여대	9월 30일	불교연극, 찬불가 합창공연, 공개대법회
승실대	10월 11~12일	차보시 및 불교용품전시회
경원대	11월 4일	창립기념 불교학생회 공개발표회
동덕여대	11월 3일	동문의 밤 및 공개발표회
명지대	11월 18일	찬불가 율동 및 창립대법회
성신여대	11월 11일	불교공예, 찬불가 공연, 공개수계식

###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은 상설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출소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수행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방식대로 간화선이든, 위빠사나이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오셔서 잠깐씩 수행하시기는 더욱 좋은 도량입니다.

**바로 지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실천하는 당신은 아름답고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 가는 길 : 서울 → 양평 → 홍천(44국도) → 철정검문소 → 수련원(451지방도로)
- 교통편: [승용차] 서울-88도로-양평-홍천(44국도)-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상남,현리방향)-451지방도로(7km 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팻말 보임)
- [버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행 버스 2)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성대리행표 구입 -1번출에서 내촌 혹은 현리행 버스 승차 -화성대리 학교 앞 하차

전화 : 033)433-5845  
입방비 : 일만오천원(1일)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장 헤거 합장**

###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솔숲 향기와 목초 향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정	지도
2006년 10월28일-11월 3일(6박7일)	우소다나 사야도
통역	정원
수마테	대상
	일반인

- 수행장소: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향토방에 옥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심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6박7일 중 일부기간 참여가능) 시작 날 - 10월 28일 오후 5시 끝나는 날 - 11월 3일 오전 12시
- 참가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관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담마선원 033)644-1786 email : dhamma53@hanmail.net

### 스님이 직접 만든 원주 생식

-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1.56%
-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1일 1키 40g 1포 × 60포 60,000원

- 정 국장 분말(우리콩) 1Kg 20,000원
- 정 국장 환(우리콩) 1Kg 25,000원

당뇨환자 전화상담

**무상사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28-3 무상사

생산물배출인보원(동양화재해상보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유통기한중 이상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조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 암주 지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